금도금 불상과 천국도금 땅

(마21:23-27)

2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2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금도금 불상과 천국도금 땅>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부처의 모습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32상 80종호’라고 말하는데 부처의 신체의 부위별로 아름다움을 서른두 가지로 말한다는 겁니다.
정수리에는 6계인 여섯 개의 점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마는 넓고 평평하고 바르다, 머리카락은 마치 소라껍질처럼 아름답다, 속눈썹은 소의 속눈썹과 같이 가지런하고 길고 짙다’ 이런 식으로 3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32가지가 더 세세하게 분화되면서 80종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신체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32상 80종호로 세분화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열여덟 번째 보면 피부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피부가 부드러우며 곱고 매끄럽고 자마금빛으로 빛난다’ 자마금빛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불상을 보면 대부분 금도금을 한 불상들이에요, 거의가 다.

그러므로 이 32상 80종호라는 말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 그 좋다는 것에 대한 감정을 부처의 신체에 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 아닌지 알 길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 관상학을 동원해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들이 좋다고 여길 만한 최고의 상태를 갖다 표현해 놓은 것이 32상 80종호이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한눈에 띠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금도금이라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앉아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의 총체가 바로 금덩어리예요, 상징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모든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길 만한 세상의 가치들을 다 뭉뚱그려 놓은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금도금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해요, 비교가 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올 때 보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모습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질 만한 것은 갖다 붙일 수가 없는 예수님을 믿고, 불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징화해서 부처의 몸에 갖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금도금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금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의 선두주자이니까 금도금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절합니다.

이 금도금을 한 것과 별다름이 없는 도금신앙이 있습니다, 도금신앙.
이 땅의 것에 마음이 가 붙어있으면서 마음이 붙어있는 이 땅을 하늘로 도금하고 천국으로 도금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도금하고 하나님이라는 말로 도금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마음이 흠모하는 것은 불상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상징화시켜서 부처의 몸에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단지 땅에서 좋은 것들을 천국으로 도금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현실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천국을 제1현실로 느끼며 살아가는 현실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현실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자식이 제1현실이 되면 하나님이 실재하시는 것보다 자식이 실재한다는 것을 더 먼저, 더 깊이, 더 강하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믿는 거예요.
경제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천국의 실재보다 경제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을 더 앞선 실재로, 더 깊은 실재로, 더 심각한 실재로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실재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더 심각하고, 더 귀중하고, 더 무겁고 비중 있게 여겨지는 실재에 마음이 가있게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 마음에 느껴지게 됩니다.
제1현실감의 특징은 제1현실로 마음을 준 그 사실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상태가 변하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2, 제3의 현실은 제1현실에서 느낀 마음의 상태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1현실감이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좌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어지는 현실은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제1현실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인 한에서는 기쁨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고 뚫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제1현실감이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 하에서 세 가지 형태의 현실감이 가능한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주제가 됩니다.
제3의 현실감이에요.
첫 번째 현실감은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지는 처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사실과 실제에 마음을

갖다 붙여놓고 제1현실로 느끼는 것.
두 번째 현실감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오감각으로는 잡히지도 닿을 수도 없는 천국인데, 몸의 감각 대신에 성령의 감각을 통하여 천국을 제1현실로 느끼는 현실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직한 의미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현실감은 어떤 것인가?
이 땅에 마음이 가서 붙어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 땅의 사실에 마음이 가 붙어있어서 제1현실이 이 땅인데,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땅을 도금해 버립니다.
천국에 관한 말로, 하나님에 관한 말로, 예수님에 관한 말로,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행동으로 도금을 해버립니다.
마음은 이 땅이 제1현실이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실재고, 내 자식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실재고, 내 건강이 천국보다 더 비중 있는 실재인데,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다 가있으면서 천국은 제2, 제3의 현실로써 마음이 붙어있는 이 땅을 도금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도금을 하느냐?
이 땅의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표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서 축복해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무병장수하면, 어지간히 잘난 채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무슨 잘난 채를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설교 끝나고 문 앞에서 인사를 하다보면 얼굴이 썩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건강을 어떻게 돌보기에 그렇게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분이 건강하신가 봐요, 아직도 건재하신 걸 보면.
그러면 잘 믿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설교시간에 하시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병든 사람이면 무조건 잘 못 믿는 겁니까?
사도바울은 학자들에 의하면 간질에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건희 씨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돈을 주시는 겁니까?
바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마음이 가있으면서, 제1현실이 이 세상의 형편이면서,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실지로 마음이 숭배하는 내용이면서, 천국으로 도금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 시절의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성전정화를 하는 혁명적인 행동,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굴욕을 안겨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 근거를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예루살렘 입성, 네가 진짜 왕이냐,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다고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느냐?' 시비를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세례요한의 세례와 회개운동이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게 바로 주제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게 주제고, '네 마음이 하늘에 붙어 있느냐, 땅에 붙어 있느냐?'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실지로 마음이 땅에 붙어 있고, 땅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헌금 많이 내는 교인 좋아하지요? 교회 크게 짓는 것 좋아하지요?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것 좋아하죠? 이때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걸 같이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금을 해버려요, 목조불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도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으로 도금을 해버리고 예수이름으로 도금을 해버립니다.
실제 마음은 천국을 제1현실감으로 느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돈이 많으면 그것이 제1현실감으로 좋아하고, 예배당 크게 지으면 그게 성공한 것처럼 여겨서 어깨가 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음이 이 땅의 좋은 것들에 붙어있으면서 천국으로 도금하고 있으면서, 땅에 붙은 마음을 예수이름으로 도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만의 예수님이 아닌 실제의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땅에 붙은 마음을 도금한 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하늘로부터라는 권위를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언급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돼요.
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전매특허 받은 자들이 진짜 하늘로부터 온 분을 죽여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땅으로부터 왔고, 땅을 갖고 싶어 했고, 땅을 가졌고, 그 마음을 하늘로 도금했을 뿐이기 때문에, 하늘은 도금하는 데에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없애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선민이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의 마음이 제1현실감을 이 땅에서 찾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특징은 땅에서 난 자들 중에서 이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땅에서 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제1현실로 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자 중 최고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세례요한은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넘어서 하늘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제1현실로 삼을 것을 땅에서 하늘을 가리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리킨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이들은 그것이 안 됐던 거죠.
세례요한의 회개가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늘을 갖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걸 천국으로, 하늘로 하나님으로 도금하고 있었으면서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으로 도금한 현실감, 이것은 예수님을 없애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현실감입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형편을 먼저 느끼려 하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죽여야 합니다, 죽은 자로 인정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실제로 하늘로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여간 이 세상에서 어떤 소원이 생기면 곧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소

원을 따라 깊이 빨려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십자가로 그 소원을 잘라내세요.
어떤 소원이 생기든, 불만이 생겨도 마찬가지이고, 이 땅과 연관된 감정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전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끊어내세요!
끊어내고 십자가에 붙어있으면 십자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하늘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늘을 실감하게 해주시고 하늘이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실보다 더 앞선 실재로 느끼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 땅으로 나가서 살게 되는 거죠, 천국 현실감을 느끼면서.
그런데 자꾸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이걸 자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제1현실감이 되어서 돈 없으면 울상이 되고, 건강이 조금 상하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일이 안 되면 신경질이 나서 길가의 돌부리를 차고 다니고, 이래가지고는 대제사장처럼, 실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히 없애고 소멸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목조불상이든 청동불상이든 금으로 도금해 놓으면 구분이 안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에 관한 말들로, 도금을 해버리고 버젓이 교회에 다니면 목조불상인지 청동불상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하긴 알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조차도 저분이 지금 금도금 한 목조불상처럼 천국으로 도금한 땅덩어리인지, 진짜 천국덩어리인지 당장 나타나지요.

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돈 부자 말고, 돈이 많이 있어도 실제로 마음이 돈에 빨려 들어가 '내가 부자다'라는 의식을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돈이 많더라도 부자가 되지는 마세요!
돈이 없다고 가난뱅이가 되지는 마세요!
천국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 부자 되시는 2012년 되시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천국

이 제1현실감이 되도록 내 마음을 자꾸 이 세상 현실감으로 끌어당기는 이 죄악의 근성을 십자가로 차단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금으로 도금한 목조불상처럼 천국과 하나님에 관한 말과 교인으로서의 문화적 행동으로 도금된 신앙을 더 이상은 살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로 천국을 제1현실로 받아들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